

IPPNW회의 한국대표 전홍준 교수

인·티·뷰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파멸하는데도 세계 각국의 상당수 국민이 핵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류에게 핵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지구와 인류를 순식간에 파괴할 핵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핵전쟁을 막기 위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전세계 48개국 20만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핵전쟁 예방 국제의사연맹(IPPNW)'이 발족한 지 올해로 10년째다.

26일부터 1주일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핵전쟁 예방 국제의사연맹 제10차 회의에 한국지부 이주걸 회장과 유성희 총무(전 서울시 의사회장) 등 1

병연구소장)가 지난 85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았다.

-한국지부가 한 일은.

=우리나라는 지난 88년에 가입해 서울시 의사회 원로의사들과 인수회 원로의사들이 주축을 이뤄 3백명 정도 가입해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먼저 핵의 가공할 생명파괴력을 알려야 한다고 보고 핵무기 개발 금지 캠페인 이외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를 이번 스톡홀름 회의에서 발표한다. 당시 한국인 5만명이 죽고 20만명이 서서히 죽어갔으며 2만명 이상이 지금도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본정부의 냉대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피폭영향은 유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 입증이 됐는데도 사회의

6시간 무기생산비로 10억 환자 치료가능

한국 88년 가입... 현재 3백명 회원 활동

2명의 한국 의사와 함께 참가하는 이 연맹 국제이사 전홍준 교수(조선대)를 25일 만났다.

-핵전쟁 예방 국제의사연맹이 창립된 지 10돌이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먼저 세계에서 6시간 동안만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 비용으로 10억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파괴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경쟁은 막아야 한다.

핵무기 경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홍보해 왔다. 효과는 틀림없이 엄청났다고 본다. 이런 업적이 인정돼 연맹 소속인 미국의사 버나드 론 박사(하버드대)와 소련의 차조프 박사(심장

그릇된 인식과 피폭자들이 유전으로 잘못 알고 결혼이나 취업에 지장을 받는 등 불이익 처벌을 받을까봐 피폭사실을 숨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북한 의사도 참석하게 되는 데.

=우리쪽에서 북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스턴(미국)에 있는 본부에 연락해 그쪽에서 유엔 주재 북한 부대사 허종씨의 도움을 받아 3명의 의사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사상적 입장을 떠나 남과 북이 모두 핵무기의 실험·제조·보관·사용을 하지 말도록 하는 평화군축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의할 계획인데 이 운동에 북한쪽 의사들도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박화강 기자>